

# 한·일 동물 속담 대조 연구

## - 토끼를 소재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

한탁철\*  
tchan@tu.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2 토끼의 생활습성과 관련된 양국의 속담 |
| 2. 양국의 토끼의 이미지            | 3.4 토끼 사냥과 관련된 양국의 속담    |
| 3. 양국의 토끼 속담 분류           | 3.5 그 외 양국의 속담           |
| 3.1 토끼의 신체 특징과 관련된 양국의 속담 | 4. 결론                    |

主題語: 속담(Proverbs), 토끼(rabbit), 대조연구(Comparative study), 이미지(image), 비유(figure of speech)

## 1. 서론

속담은 옛날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민중 생활의 체험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문화적 산물로 그 속에는 선조들의 풍습이나, 지혜, 관습, 가치관 등 문화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속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속담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로는 인간이나 자연, 동식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은 인간과 오랜 세월을 두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해 온 까닭에 속담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에는 대부분이 그 동물의 습성, 성격, 행동양식 등이 비유적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속담의 소재로 사용되는 동물에는 단순한 소재 그 이상의 비유적으로 표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담 중에서도 토끼를 소재로 한 한·일 양국의 속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토끼는 설화의 동물담 중 호랑이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동물<sup>1)</sup>로 우리와 친근한 동물 중의 하나이지만 한·일 양국의 속담 연구 가운데 토끼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를 거의 찾아 볼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1) 김선풍 외(1996)「민속학적으로 본 열 두 띠 이야기」, p.126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끼를 소재로 한 한·일 양국의 속담의 대조 연구를 통해서 양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토끼의 신체적 특징과 습성, 상징적 이미지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어 속담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탁철(1999)은 양국의 속담에서 전체 동물의 출현빈도 즉, 분포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양국 모두 전체 동물 중에서 12지 동물의 출현빈도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동물명의 출현빈도 순서에 따라 양 민족의 동물에 대한 호감도 및 동물관, 가치관 등의 문화적인 상대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유지(2004)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두 동물의 특성을 분류하여 그와 관련된 속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양국 문화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高橋正憲(2012)은 호랑이, 개, 여우, 곰 등 9종류의 동물을 대상으로 양국어에 가지고 있는 동물 메타포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본래의 이미지와 변화된 이미지의 차이점을 밝혔는데 주로 속담 속에 나타난 동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동물의 상징성에 관련한 연구, 12지 동물 연구, 개, 말의 한·일 비교 연구 등이 있으나, 토끼에 관련된 양국의 연구는 엿볼 수 없어 본고에서는 토끼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양국의 토끼와 관련된 용례는 한국의 경우, 『동물속담사전』(동문선)에서 40례를 추출하였고<sup>2)</sup> 일본의 경우, 『動植物ことわざ辞典』(東京堂出版)에서 29례를 추출하였다. 이 용례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토끼를 소재로 한 속담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토끼를 소재로 한 속담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 첫째, 토끼의 신체 특징과 관련된 양국의 속담
- 둘째, 토끼의 생활습성과 관련된 양국의 속담
- 셋째, 교훈이 있는 우화와 관련된 양국의 속담
- 넷째, 토끼 사냥과 관련된 양국의 속담
- 다섯째, 그 외 양국의 속담

2) 토끼와 관련된 속담 용례 50례 중 의미와 형태가 거의 유사한 용례 10례를 제외한 수가 40례였다.

## 2. 한·일의 토끼에 대한 이미지

토끼는 12지 동물 가운데 하나로 옛 이야기나 동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가축화하여 식용으로 이용되는 등 소, 돼지, 말 등과 함께 인간과 친근한 동물이다. 한·일 동물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sup>3)</sup> 토끼는 한국의 경우, 등장하는 동물 중 0.33%를 차지하고, 일본의 경우 0.25%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속담에서 전체 동물에서 토끼가 등장하는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일본의 토끼의 상징 및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과 일본의 토끼의 상징 및 이미지

한국	일본
<p>① 토끼는 달 속에 산다고 하는 이상세계의 신수(神獸)로서 달과 동일시되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최고의 장수동물로 상징화되어 있다.<sup>4)</sup></p> <p>② 토끼의 상징은 크게 영리함과 연약함으로 나타난다. 토끼가 연약하다는 것은 동물적인 습성 때문이고, 재치와 기지가 많다는 것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다.<sup>5)</sup></p>	<p>① 月に見える黒い陰を兎の姿と見、世界的に広く月にすむと考えられた。<sup>6)</sup></p> <p>② 月のシンボル、山のシンボル、多産・豊穰・性のシンボル、速さのシンボル、献身のシンボル、宗教のシンボル、組織のシンボル。<sup>7)</sup></p>

위의 <표1>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토끼를 달의 상징적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도교문화의 영향으로 달 속에서 토끼가 불사약을 쪼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공통된 이미지이다.

한국에서 토끼는 피가 많고 영민한 동물로 인식된다. 「토끼전」이란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토끼는 재치와 기지가 뛰어난 동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민한 나머지 자기 피에

3) 한탁철(1999)은 한국 동물 속담에서 출현하는 동물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개, 소, 호랑이, 말, 쥐, 닭, 고양이, 까마귀, 꿩, 새, 물고기, 뱀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 일본 동물 속담에서는 말, 소, 개, 물고기, 벌, 새, 고양이, 학, 뱀, 참새, 까마귀, 원숭이의 순위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pp.73-76

4) 김선풍 외(1996), 집문당, p.148

5) 김종대(2001), 다룬세상, p.394

6) 高橋秀治(平成9年)、東京堂出版、p.42

7) <https://ja.wikipedia.org>

넘어가 패배자가 된 이미지도 이솝우화나, 다른 옛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다. 대체로 한국에서의 토끼의 이미지는 영리함과 연약함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에도 옛 동요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친근한 동물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의 토끼는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여 악을 징벌하는 동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한편, 일본에서의 토끼는 한국과 다르게 산속의 神, 또는 神의 使者로 인식되어 일본의 많은 神社에는 토끼가 神使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토끼는 재수 좋은 동물로 인식되어 기업이나 단체의 심벌마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토끼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 3. 양국의 토끼 속담 분류

#### 3.1 토끼의 신체 특징에서 생겨난 양국의 속담

토끼는 토끼목에 속하는 토끼과 동물로 귀는 대체로 길고 크며,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발달하였고 겨울에는 흔히 흰털로 변한다. 토끼의 신체적 특징이 포함된 양국의 속담은 다음과 같다.

##### 3.1.1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

- (1) K1 토끼의 뿔이고 거북의 털이다.  
 J1 兎の角、龜の毛。(토끼의 뿔, 거북의 털)  
 J2 兎の角論。(토끼의 각론: 토끼의 뿔에 대한 논의)

K1과 J1은 토끼는 뿔이 없고, 거북은 털이 없다는 신체적인 특징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의 비유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J2는 토끼는 뿔은 없다는 것에서 생긴 속담으로 근거 없는 일을 바탕으로 행하는 무익한 논의라는 의미를 가진다.

- (2) K2 토끼 새끼가 나이 먹어서 희다더냐.  
 J3 寒の兎か白鷺か。(한겨울의 토끼인가 백로인가)

두 속담은 토끼의 털빛과 관련된 것으로 K2는 토끼 새끼가 흰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즉, 머리가 남보다 흰 것을 가지고 나이 자랑을 하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으로 머리가 흰 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으로 나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비유 표현이다. 이에 반해 J3는 한겨울의 흰 토끼의 모습을 백로에 비유한 표현이다. 즉 새하얀 것의 비유 표현이다.

양국의 경우 토끼의 신체 부분의 묘사 중에서 토끼의 무각(無角)과 토끼털빛에 관련된 속담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1.2 한·일 대응이 없는 한국의 속담

- (1) K3 놀란 토끼의 눈이다.
- K4 토끼 꼬리만 하다.
- K5 한라산 토끼 상이다.

K3은 토끼가 놀랐을 때의 동그란 눈을 보고 겁에 질린 눈초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K5는 토끼 꼬리가 아주 짧음의 비유로 사물의 길이가 짧음의 비유 표현이다. K6은 놀란 토끼처럼 눈이 동그해진 얼굴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상으로 토끼의 신체적 모습에서 생겨난 양국의 토끼 속담을 살펴본 결과, 토끼의 빛깔과 무각에 관련된 속담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토끼털의 부드러움과 변, 다리를 특징으로 한 속담이 나타나고, 한국의 경우 토끼눈, 꼬리, 얼굴을 소재로 한 속담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차이점으로 보인다.

### 3.1.3 한·일 대응이 없는 일본의 속담

- (1) J4 兎の毛でついたほど。(토끼털이 붙은 정도로)
- J5 兎の逆立ち。(토끼의 물구나무서기)
- J6 兎の股引。(토끼의 잠방이)
- J7 兎の糞<sup>8)</sup>。(토끼의 똥)

J4는 토끼털이 가늘고 부드럽고 짧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으로 토끼털이 붙은 정도라는

---

8) 토끼의 똥은 신체의 일부는 아니나 신체의 기능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이므로 신체를 나타내는 속담으로 분류하였다.

것은 아주 조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J5는 토끼의 귀는 길어서 토끼가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귀가 아플 것이라는 의미로 귀가 아플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J6은 잠방이는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의 종류로 토끼의 잠방이는 아주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끼의 잠방이는 아주 짧음을 나타내는 말로 오랫동안 일을 계속할지 못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J7의 경우는 토끼의 똥은 배설물로 동글동글하고 딱딱한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똥의 생긴 모습에서 일을 오래하지 못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 3.2 토끼의 습성<sup>9)</sup>과 관련된 속담

토끼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이 나타나 있는 한·일 양국의 속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끼의 습성은 주로 야산에서 서식하며 몸놀림이 재빠르고 걸음도 재빠르다. 또, 뒷다리가 길어서 산 밑에서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나기를 잘하는 특성이 있다.

#### 3.2.1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

(1) K1 교활한 토끼는 굴이 셋이다.

J1 狡兔三窟。(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이 있다)

K1과 J1은 모두 토끼가 굴을 세 개 파는 생활 습관을 보고 만들어진 속담으로, 피가 많은 토끼는 굴 셋을 연결시켜 비상시에 이용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비상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2) K2 토끼도 자꾸 때리면 문다.

J2 兎七日なぶれば噛みつく。(토끼도 7일 괴롭히면 문다)

K2는 토끼와 같이 연약한 동물도 자꾸 괴롭히면 문다는 표현으로 아무리 순한 사람도 궁지에 몰리거나 자꾸 괴롭히면 참다가 나중에는 대항한다는 의미가 있다. J2의 경우 7일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두 속담 모두 토끼의 연약함이 잘 나타나 있다.

9) 습성의 사전학적 의미는 동일한 동일 종 내에서 공통되는 생활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토끼의 습성에 따른 분류에는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다.

- (3) K3 토끼 도망치듯 한다.
- J3 脱兎のごとし。(도망치는 토끼처럼)

두 표현은 양국 모두가 토끼가 재빨리 도망치는 행동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토끼의 민첩한 행동을 비유한 것이다.

- (4) K4 토끼는 내리막에서 아저씨 아저씨하고 오르막에서 내 좇 빨아라 한다.
- J4 兎の登り坂。(토끼에게 오르막 언덕)

J4는 토끼의 언덕을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특성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좋은 조건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K5가 있다.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서 내리막길을 잘 가지 못하므로 조심조심 가고 오르막길은 재빠르게 달리는 행동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고생스러울 때는 굵신거리다가도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두 표현은 토끼가 오르막길을 재빠르게 달리는 행동을 묘사했다는 것은 동일하나, 일본의 경우 오르막에서 토끼가 빨리 달리는 습성만을 표현한 반면, 한국의 경우 오르막과 내리막을 대비시켜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2.2 한·일 대응이 없는 한국 속담

- (1) K5 토끼 입에 콩가루 묻은 것 같다.
- K6 장마 토끼 날씨 개이기 기다리듯 한다.
- K7 놀란 토끼 뛰 듯 한다.
- K8 눈 먼 토끼 뛰 듯 한다.
- K9 선불 맞은 토끼다.
- K10 세전토끼.
- K11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 K12 바다 가서 토끼 찾기.
- K13 토끼를 바다에서 잡고, 물고기를 산에서 구한다.
- K14 놀란 토끼 벼랑 바위 쳐다보듯 한다.

K5는 토끼가 음식을 먹으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고 생겨난 속담으로 무엇을 먹은 흔적이 입가에 남아 있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K6은 토끼는 물 묻은 풀을 먹지 않는

습성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토끼는 장마 때는 굶주리며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소원하는 것을 몹시 기다린다는 비유 표현이다. K7은 놀란 토끼가 도망치듯이, 악을 쓰고 도망가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K8은 눈 먼 토끼가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계획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K9는 선불은 급소에 바로 맞지 아니한 총알의 의미로 총에 설맞은 토끼가 도망치듯이 악을 쓰고 도망가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K10은 눈 오기 전에 늘 같은 길만 다니는 토끼의 행동을 보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K11은 제가 먼저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K12와 K13은 토끼가 살아가는 환경과 관련된 속담으로 엉뚱한 곳에서 헛일을 한다는 의미로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비유한 표현이다. K14는 토끼가 높은 벼랑을 쳐다보고 절망하는 모습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절망한 사람을 비유하여 나타낸 표현이다.

토끼의 생활 습성과 관련 있는 양국의 속담에서는 토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첩함, 영리함, 연약함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국 속담의 경우 토끼가 먹이를 먹는 모습, 토끼가 뛰는 행동, 놀라는 모습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속담들이 많다.

### 3.2.3 한·일 대응이 없는 일본 속담

- (1) J5 はじめは処女のごとく、後は脱兎のごとし。  
(처음에는 처녀처럼, 나중에는 달리는 토끼처럼)

J5는 처음에는 처녀처럼 약한 모습으로 보이게 위장하고 나중에는 도망치는 토끼처럼 재빠르게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약하게 보여 상대방이 방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처음과 달리 힘을 발휘한다는 비유의 표현이다. 『孫子』九地篇에 있다.

## 3.3 토끼의 우화와 관련 된 속담

우화에 나타나는 토끼의 모습은 꾀가 많은 토끼의 영리한 면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패배를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 3.3.1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

양국에 「토끼와 거북의 경주」 우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유사한 속담 표현이 나타난다.



- (1) K1 토끼는 잠자다 잡힌다.
- J1 兎の昼寝。(토끼의 낮잠)

두 속담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를 무시해서 낮잠을 자다가 거북에게 진 것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방심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피가 많은 토끼가 남을 깔보다가 시합에서 지는 토끼의 행동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속담이다.

### 3.3.2 한·일 대응이 없는 한국 속담

- (1) K2 토끼가 용궁을 가도 살 길은 있다.

토끼가 거북에게 속아서 바다 속 용궁에 잡혀갔어도 피를 내어 살아난 한국의 옛날이야기 「토끼전」에서 생겨난 속담으로 궁지에 빠진 사람도 실망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영리한 토끼의 행동이 잘 나타난 속담이다.

## 3.4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

토끼는 힘센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사냥감의 대상이었다. 오래전부터 토끼 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모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른 토끼사냥 또는 토끼몰이와 관련된 속담들도 찾아 볼 수 있다. 토끼 사냥이라는 현실적인 유사한 경험으로 생겨난 공통적인 속담이 보인다.

### 3.4.1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

- (1) K1 토끼 밧에 여우가 걸린다.
- J1 兎の罌に狐がかかる。(토끼 밧에 여우가 걸린다)

K1의 경우 적은 밑천으로 큰 이익을 본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J1의 경우 생각지 않은 행운의 비유 표현으로 사용된다. 두 표현은 형태와 의미가 유사하다.

- (2) K2 토끼 잡고 나면 밧도 잊고 간다.
- K3 토끼를 잡고 나면 울무도 버린다.
- J2 兎を得て罌を忘す。(토끼를 잡고 밧을 잊는다)

K2, K3, J2의 표현은 덧으로 토끼를 잡은 후에 기쁜 나머지 덧을 잊고 간다는 의미로 목적을 달성한 후에 도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의 비유 표현이다. 요긴하게 쓰던 물건도 쓰고 나면 버린다는 의미이다.

- (3) K4 토끼를 보고 매를 날려도 늦지 않다.
- J3 兎を見て犬を放つ。(토끼를 보고 개를 쫓다)
- J4 兎を見て鷹を放つ。(토끼를 보고 매를 날린다)

K4의 경우 토끼도 빠르지만 매는 더 빠르기 때문에 토끼 본 뒤에 매를 날려도 토끼를 잡을 수 있듯이 약자는 강자 앞에서는 맥을 못 쓴다는 의미를 가진다. J3, J4의 경우 토끼를 발견하고 개를 보내도 늦지 않다는 의미다. 처음에는 일을 빨리 단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일을 닦쳐서 당황해서 서둘러 한다는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4) K5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
- J5 狡兎死して走狗にらる。(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토끼를 잡고 나면 필요 없게 된 사냥개는 잡아먹는다는 의미로 사람을 쓰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내쫓게 된다는 비유 표현이다.

- (5) K6 토끼 두 마리를 쫓다가는 다 놓친다.
- K7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는다.
- K8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 K9 달는 사슴 보고 얻은 토끼 잃는다.
- J6 二兎を追うものは一兎を得ず。(두 마리를 쫓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위의 표현들은 모두 너무 크게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는 도리어 이미 이룬 일까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도 못 이룬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유사한 속담이 여럿 존재한다. 이는 모두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는 속담이다.

### 3.4.2 한·일 대응이 없는 한국 속담

- (1) K10 토끼 보고 환도 빼기.

K11 토끼 사냥에 호랑이 가죽을 쓴 여우가 날뛴다.

K12 토끼 보고 그물 멘다.

K10은 작은 일을 하는 데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한다는 비유의 표현이고, K11는 양심을 가졌거나 야심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방해한다는 의미이다. K12은 시기를 놓치고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비유의 표현이다.

### 3.4.3 한·일 대응이 없는 일본 속담

(1) J7 韓廬をはせて蹇兎を追う。(날센 사냥개를 풀어서 다친 토끼를 쫓는다.)

J8 春の日に兎をつるよう。(봄날에 토끼를 낚는 것처럼)

J7는 「韓廬」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韓나라에 있던 명견의 이름이고, 「蹇兎」는 다리에 장애를 가진 토끼이다. 이 속담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 싸움을 건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이 속담은 『戰国策』 奉策편에 수록되어 있다.

J8은 긴 봄날 앉아서 토끼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봄 날 가만히 앉아서 토끼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아주 느리고 꿈뜬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한국의 경우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는 유사한 표현이 있다.

## 3.5 그 외의 기타 속담

### 3.5.1 한·일 공통으로 나타나는 속담

(1) K1 토끼 죽은데 여우가 슬퍼하듯 하다.

J1 兎死すれば狐之を悲しむ。(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위의 두 표현은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는 의미와 형태를 가진다. 동료가 죽음을 당하면 슬퍼한다는 의미로 양국 모두 토끼와 여우가 동료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 3.5.2 기타 한국 속담

토끼를 이용한 약자와 강자의 비유 속담과 기타 속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토끼를 이용한 약자에 비유한 속담

- (1) K2 범 없는 산에서 토끼가 스승이다.
- K3 사자 없는 산에 토끼가 대장 노릇한다.

두 표현은 모두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못난 사람이 기승을 뽐낸다는 의미로 주인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비유의 의미를 가진다. 범이나 사자가 강자의 대표적 동물로 토끼가 약자의 대표적인 동물로 묘사되어 있는 속담이다.

2) 그 외의 속담

- (2) K4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
- K5 눈 먹는 토끼 다르고 얼음 먹는 토끼 다르다.
- K6 토끼 북한산에 다녀온 셈이다.
- K7 성질 급한 토끼가 먼저 죽는다.

K4는 겨울 산에 눈이 오면 양달 토끼는 건너편 응달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꼼짝 않고 굶고만 있지만, 응달 토끼는 건너편 양달의 눈이 녹는 것을 보고 먹이를 찾게 된다는 뜻으로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환경이 나쁜 사람이 활동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5는 사소한 경험의 차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식견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K6은 내용도 모르고 건성으로 다녀왔다는 의미를 가진 비유의 표현이다. K7는 무슨 일이나 성급하게 하면 실패한다는 의미로 성질 급한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 3.5.3 기타 일본 속담

1) 달과 관련된 기타 일본 속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토끼는 신성한 존재이다. 한국의 경우 달에도 토끼가 살고 있으며 토끼가 달의 정령과도 같은 상징성을 가진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달에 비친 검은 그림자를 토끼의 모습으로 보고 토끼가 달에 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끼의 상징성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속담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달과 관련된 토끼 속담은 다음과 같다.

- (1) J2 兔におすなし。(토끼는 수놈이 없다)
- J3 兔は月見して孕む。(토끼는 달을 보고 새끼를 밴다)
- J4 兔 波を走る。(토끼가 파도를 달린다)

J2는 토끼는 달을 보고 임신을 한다고 하는 중국의 속담에서 온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 J3은 달의 크레이터가 토끼가 떡을 만들고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속설이라고 한다. 달은 여성을 상징하고 해는 남성을 상징한다. 달에 사는 토끼는 여성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토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J3은 파도가 하얗게 빛나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마치 토끼가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이다. 달그림자가 수면에 비친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는 토끼가 물속에 들어갈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교의 깨달음을 이야기 할 때 깨달음의 정도가 아주 얕음을 비유할 때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달과 관련된 속담은 본고에서 조사한 한국의 속담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그 외의 일본 속담

- (2) J5 年劫の兔。(나이 많은 토끼)
- J6 兔兵法。(토끼병법)
- J7 兔の字。(토끼의 우자)
- J8 兔に祭文。(토끼에게 경 읽기)

J5는 연륜이 있는 능구렁이 같은 토끼라는 뜻으로 보통 방법으로는 다루기 힘든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J6은 토끼 병법이라는 뜻으로 서툰 책략을 사용하여 오히려 작전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J7은 토끼를 의미하는 한자인 「兔」가 「免」(면직할 면)과 비슷하게 생긴 것에서 생긴 속담으로 면직되었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J8은 祭文(제문)은 제사 때 신전 앞에 고하는 중국의 축사인데, 토끼에게 이 제문을 들려주어도 토끼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속담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한국 속담은 「소귀에 경 읽기」가 있다.

한·일의 기타 속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달과 관련한 속담이 나타난다는 것, 한국의 경우 비유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토끼를 소재로 한 한·일 양국의 속담을 토끼의 신체 특징과 관련된 속담, 토끼의 생활습성과 관련된 속담, 교훈이 있는 우화와 관련된 속담, 토끼 사냥과 관련된 속담, 그 외 속담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토끼의 습성에 관련된 속담(35%)과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30%)이 많이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27.5%)과 기타 비유표현(27.5%)이 같은 비율로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2> 한국과 일본의 토끼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일본 속담	한·일 대응하는 속담이 있는 경우
신체	5(12.5%)	7(24.1%)	1
습성	14(35%)	5(20.8%)	4
우화	2(5%)	1(3.4%)	1
토끼 사냥	12(30%)	8(27.5%)	5
기타 비유표현	7(17.5%)	8(27.5%)	1
전체속담 수	40	29	12

위의 5가지로 분류한 속담을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과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속담,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속담으로 재분류하여 대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과 같이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의 경우 토끼의 습성에 관련된 속담과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양국 모두 토끼의 습성과 토끼를 사냥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해학과 교훈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표3> 한·일 양국의 토끼에 관련된 공통된 속담

	한국 속담	일본 속담
신체특징	토끼의 뿔이고 거북의 털이다.	兎の角、龜の毛。
습성	토끼도 자꾸 때리면 사람을 문다.	兎七日なぶれば噛みつく。
습성	교활한 토끼는 굴이 셋이다.	狡兎三窟。
습성	토끼 도망치듯 한다.	脱兎のごどく。

습성	토끼도 문다.	なぶれば兎もくいつく。
우화	토끼는 잠자다 잡힌다.	兎の昼寝。
토끼사냥	토끼 덫에 여우가 걸린다.	兎の罠に狐がかかる。
토끼사냥	토끼 잡고 나면 덫도 잊고 간다.	兎を得て罠を忘す。
토끼사냥	토끼 잡고 매를 날려도 늦지 않다.	兎を見て犬を放つ。
토끼사냥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	狡兎死して走狗にらる。
토끼사냥	토끼 두 마리를 쫓다가는 다 놓친다.	二兎を追うものは一兎を得ず。
기타	토끼 죽은데 여우가 슬퍼하듯 하다.	兎死すれば狐之を悲しむ。

한편, 토끼를 소재로 한 한·일 대응이 없는 속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토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달과 관련된 속담 표현이 나타나나, 한국의 경우 달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한국의 경우 토끼는 강한 동물에 대비된 약한 동물의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용례들이 나타나는데 일본의 경우 그런 속담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일본의 경우 중국의 고전에서 생겨난 속담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일상에서의 비유 표현으로 해학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토끼를 소재로 한 속담을 대조 분석하여 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한 양국 속담의 용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과 한국 토끼 속담의 용례와 일본 토끼 속담의 용례의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지나, 본고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일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속담을 통한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参考文献】**

김선풍 외(1996)『민속학적으로 본 열두 띠 이야기』집문당, p.126, p.148  
 김중대(2001)『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다른세상, p.394  
 송재선(1997)『동물속담사전』동문선  
 이기문(1997)『속담사전』一潮閣  
 정유지(2004)「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비교 연구,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미영(2006)「한·일 양국의 동물속담 비교·분석」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탁철(1999)「韓日兩國のことわざ対照比較動物を素材としたことわざを中心に」『日語教育』第十六輯,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73-76  
 石綿敏雄ら(1990)『対照言語学』おうふう社

加藤みちお(1996)『十二支の話題事典』東京堂出版

高橋秀治(1997)『動植物ことわざ辞典』東京堂出版、p.42

高橋正憲(2012)「日・韓動物メタファーに関する対照研究」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山中襄太(1974)『語源十二支物語』大修館書店

<https://ja.wikipedia.org>

---

논문투고일 : 2017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02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



<요旨>

한·일 동물 속담 대조 연구

- 토끼를 소재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

한탁철

본 연구에서는 토끼를 소재로 한 한·일 양국의 속담을 토끼의 신체 특징과 관련된 속담, 토끼의 생활습성과 관련된 속담, 교훈이 있는 우화와 관련된 속담, 토끼사냥과 관련된 속담, 그 외 속담으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토끼 습성에 관련된 속담(35%)과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30%)이 많이 나타난 반면, 일본의 경우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27.5%)과 기타 속담(27.5%)이 같은 비율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5가지로 분류한 속담을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과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속담,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속담으로 다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일 대응이 있는 속담을 살펴본 결과, 토끼의 습성과 관련된 속담과 토끼 사냥에 관련된 속담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속담이 토끼의 습성과 토끼를 사냥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해학과 교훈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대응이 없는 속담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토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달과 관련된 속담 표현이 나타나나, 한국의 경우 달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한국의 경우 토끼는 강한 동물에 대비된 약한 동물의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 하는 용례들이 나타나는데 일본의 경우 그런 속담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일본의 경우 중국의 고전에서 생겨난 속담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일상에서의 비유 표현으로 해학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Research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nimal Proverbs

- On the basis of rabbit as the subject matter -

Han, Tak-Cheol

This research study uses a rabbit as the subject matter in order to analyze Korean and Japanese proverbs. Specifically,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abbit's physical characteristics, living patterns, tales offering life lessons, rabbit hunting and special metaphors as they relate to the proverbs. The results for Korea showed that there was 35% for proverbs related to rabbits' natural behavioral tendencies and 30% for rabbit hunting related proverbs. On the other hand, in Japan's case, there was 27.5% proverbs related to rabbit hunting and 27.5% other proverbs.

The five categories above can further be grouped into the following: proverbs that have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commonality, proverbs that appear only in Korea and proverbs that only appear in Japan.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and Japanese proverbial commonality,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mmonality among the natural behavioral tendencies of rabbits and rabbit hunting related proverbs. It seems that both countries' proverbs pertaining to rabbits' natural tendencies and rabbit hunting seeks to figuratively express these sayings in order to provide humor and life lesson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or the proverbs that had no commona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for Japan, there appears proverbs related to the moon which is the symbol for a rabbit;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such an expression related to the moon. Second, in the case of Korea, there appears examples of rabbits being symbolized as weak animals when compared against strong animals. However, in Japan, there is no such proverbs. Third,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a high prevalence of proverbs originating from Chinese classics; whereas, in the case of Korea, there seems to be an abundance of metaphoric expressions used for humor in people's everyday lives.